손흥민 싱가포르전 왼발 감아차기 '올해의 골' 선정

한국 팬들 투표…1만1473명 득표
2위 이강인 튀니지전 왼발 프리킥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싱가포르전 왼발 감아차기 골이 '올해의 골'에 선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16일 싱가포르를 상대로 후반 18분 손흥민이 넣은 왼발 감아차기 슈팅이 '올해의 골'로 뽑혔다"고 27일 발표했다.

올해의 골은 지난 11~20일 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팬 투표로 선정됐다.

총 2만5908명의 팬이 참여한 투표에서 손흥민의 골은 1만1473명(득표율 44%)의 선택을 받았다.

2위는 9754표를 받은 이강인의 튀니지전 왼발 프리킥 골이다.

백승호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쿠웨이트전에서 넣은 프리킥 골은 1834표로 3위에 올랐다.

'올해의 경기' 부문에서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차전 중국전이 1만1114명의 지지를 받아 1위로 뽑혔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달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월드컵 2차 예선 2차전에서 손흥민의 멀티골과 정승현(울산)의 헤더골로 3-0 승리를 거뒀다.

이 밖에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결승전 한일전이 7132표로 2위, 지난 10월 13일 튀니지와의 A매치 친선경기(4-0 승)가 6329표로 3위를 차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2년부터 매년 연말 그해 열린 각급 대표팀 경기를 대상으로 '올해의 골'과 '올해의 경기'를 뽑는 팬 투표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이 올해의 경기에 선정됐고, 이 경기에서 황희찬(울버햄프턴)의 넣은 결승골이 '올해의 골'이 됐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지난 11월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C조 1차전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에서 넣은 골이 '올해의 골'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페퍼스 마지막 홈 경기 관람하고 선물받으세요"

호텔숙박권·선수단 사인볼 증정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30일 페퍼스타디움에서 구장을 찾은 팬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연다.

페퍼스는 이날 오후 4시 페퍼스타디움에서 IBK기업은행과 2023년도 마지막 홈경기를 치른다.

페퍼스는 당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숙박권, 광주 수완병원 건강검진권 등을 추첨해 증정한다. 또 오후 2시부터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선수단 사인볼도 증정한다.

이날 경기장에는 페퍼스 경기를 직접 관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그룹 '라붐' 멤버 가수 소연의 이벤트도 마련됐다. 소연은 경기 전 시구를 한 뒤, 경기 2세트가 끝난 후 미니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소연은 "AI페퍼스의 2023년 마지막 경기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고향 팬분들과 함께 응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라며 광주와 AI페퍼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함정우, 2023 KPGA 제네시스 대상

함정우(가운데)가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3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함정우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대상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다.

함정우는 27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3 KPGA 제네시스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의 상인 대상을 받았다.

함정우는 이번 시즌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우승을 비롯해 출전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려 가장 많은 대상 포인트 6062.25점을 받았다.

함정우는 대상 수상자에게 주는 보너스 상금 1억원과 제네시스 차량, 코리안투어 시드 5년, DP 월드투어 시드 1년 등의 혜택을 받았다.

코리안투어 시즌이 끝난 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퀄리파잉 스쿨에 응시한 함정우는 2부 투어인 콘페리 투어 조건부 출전권을 확보했다.

함정우와 함께 치열한 대결을 벌였던 박상현은 상금왕과 최저타수상을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신인왕은 박성준에게 돌아갔고, 이번 시즌 3승을 올린 고군택은 기량발전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임성재·김주형,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 이끈다

내년 9월 출전 선수 확정
세계 최강 미국팀과 골프대항전

한국 남자골프의 '젊은 피' 김주형과 임성재가 2024년 세계 최강 미국골프팀과 맞붙는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의 주축이 된다.

프레지던츠컵은 2년마다 미국과 인터내셔널팀(유럽 제외)이 12명씩 선수를 구성해 맞붙는 단체전이다. 내년에는 현지시간 9월 26일부터 나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로열 몬트리올 골프 클럽에서 열린다.

인터내셔널팀은 내년 8월 26일 발표되는 세계골프랭킹 순위로 6명의 선수를 먼저 뽑고, 나머지 6명은 마이크 위어(캐나다) 단장이 선택한다.

대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김주형과 임성재의 출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21세의 김주형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벌써 3승을 수확했고 2022년 대회에도 출전했다. 세계랭킹 11위로 인터내셔널팀 선발 1순위에 올라 있다.

25세의 임성재는 PGA 투어에서 2승을 올렸고, 인터내셔널팀 선발 3순위다.

프레지던츠컵에 이미 두차례나 출전한 경험이 있고 견고한 볼 스트라이킹으로 많은 버디를 낚아 PGA 투어에서도 '버디 머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성적 순위 6위 안에는 호주 교포 이민우도 포함됐다. 이 밖에 김시우, 이경훈, 안병훈은 단장의 선택으로 인터내셔널팀에 합류할 가능성을 남겨 놓았다.

임성재

김주형

이들과 맞붙는 미국팀은 PGA 투어의 페덱스 랭킹으로 6명을, 짐 퓨릭(미국) 단장의 선택으로 남은 6명을 채운다.

성적순으로 뽑는 1순위는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다. 셰플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PGA 투어에서 6승을 쓸어 담아 세계 최고의 경기력을 갖춘 선수로 꼽힌다.

이 밖에 맥스 호마, 윈덤 클라크, 콜린 모리카와 등이 미국팀에 무난히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지던츠컵의 역대 전적은 12승 1무 1패로 미국팀의 압도적인 우세다.

김주형, 임성재를 주축으로 한 인터내셔널팀이 내년에는 열세를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I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울의 봄
2관	노량: 죽음의 바다
3관	서울의 봄
4관	서울의 봄
5관	노량: 죽음의 바다,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6관	노량: 죽음의 바다
9관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7관씨네카플	신차원! 짱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8관씨네카플	노량: 죽음의 바다,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위드키즈]바다 탐험대 옥토넛 어보브 앤 비욘드 : 버드, 옥토경보를 울려라!, 트롤: 밴드 투게더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80회 정기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Festival
일시 : 2024-01-16(화) ~ 2024-01-17(수) 19:30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김선희 개인전 〈my little hero〉
일시 : 2023-12-01(금) ~ 2023-12-31(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